

7+8+9

2014

좋은 사람 좋은 세상

CoverStory

박진선 샘표식품(주) 사장

우리 맛으로
세계인을 즐겁게

발행인편지

HDI CEO세미나

최윤규의 카툰노믹스

Issue&Seminar1

김형준 명지대 교수

Issue&Seminar2

박세준 한국암웨이 사장

Issue&Seminar3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

Hot&Issue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4

회원&연구원소식

MembershipDay1

2014 HDI 춘계 친선골프대회

MembershipDay2

인간개발연구원 '찾아가는 CEO교실 13, 14, 15'

2014 제주 CEO섬머포럼

Special Focus

경제원리, 물처럼 흐른다

김동기칼럼

김동기 고려대 석좌교수

표지인물 박진선 샘표식품(주) 사장 사진 오경근 원장

통권 제123호(비매물)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4년 7월 21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주소 135-8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36 동성빌딩 2층(www.hdi.or.kr)



‘카본’, ‘세라믹단열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모간**이 있습니다.



Thermal Ceramics

세계최초 바이오슬루블 웰빙 단열재(친환경)
Superwool, 세라믹화이버, 세라믹보드,
파이로블럭 모듈 외



Engineered Carbon

첨단 카본분야의 리더
초고순도 Glassy Carbon 함침 및 코팅,
Graphite 제품, Carbon Felt 외



Electrical Carbon

카본이라면 ‘가람카본’
산업용 카본브러쉬, 집전자용 카본, 슬립링 외



Graphite 열교환기

세계적인 흑연 열교환기
Graphite Shell & Tube Heat Exchangers 외

왜 공부하는가?

'피로 물든 가자지구' 7월 22일 어느 일간지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아빠 잃은 이스라엘 소년, 포탄 맞은 팔레스타인 소녀 등 울며 신음하는 비참하고 슬픈 장면이 같은 지면에 실려 필자의 눈과 마음을 붙잡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7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사태발생 후 두 번째 통화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휴전을 촉구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미 NBC방송에 출연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을 개입치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속가능한 평화가 목표'라면서도 "한 발 물러서는 게 평화 아닌가?"라는 ABC방송 측 질문에 휴전은 하마스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답하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2천년의 역사를 통해 나라를 지켜온 가운데, 또 한 번 겪는 국가적 시련의 한 장면이다. 오늘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현대국가로 세워졌으며, 2억 5천만의 아랍국가들에 에워쌓인채 생존하며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강국으로 성장해왔는지 그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난 2천년 동안 세계사에서 상상을 초월한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끈질기게 이스라엘 민족사를 키워왔다.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은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게토(Ghetto)라고 불리는 유대인 거주지역에서 살아야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20세기 초에는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600만을 헤아리는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상대성이론을 밝힌 아인슈타인,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와 하워드 솔츠, 마크 주커버그 등의 기업가, 프로이트, 노암 촘스키, 에리히 프롬 등의 학자, NBC의 창업자 데이비드 사르노프, 뉴욕타임즈의 창립자 아돌프 옉크스 등의 언론인, 영화배우 더스틴 호프만과 영화감독 스티븐 스피버그 등이 모두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이 세계사를 빛내고 있다. 21세기 70억 세계인구에서 0.2%에도 못 미치는 1,300만 명의 인구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이다. 미국이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그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다.

힐 마굴린은 1951년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콜로라도대학에서 화학과 지리학을 전공하고, 사우스웨스턴대학 로스쿨에서 법률을 전공한 뒤 변호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 1978년 아내 데니스 마굴린과 결혼했으나 아이를 갖지 못한 마굴린 부부는 1984년 한국에서 남자아이를, 1989년에는 또다시 한국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해 벤 마굴린과 릴리 마굴린이란 이름으로 가르치고 공부시켜 하버드 등 명문학교에 진학시키는 등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 빛을 내는 별이다. 부모로서 나와 내내는 두 개의 빛나는 별을 키워나갔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 벤과 릴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독수리가 은빛 날개를 우리 눈앞에 펼치듯 나와 아내의 삶에 강렬하게 들어왔고,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

리들에게 선물했다."

마굴린은 공부하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며 자기들이 낳지도 않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신들이 먼저 공부하며 바른 자세로 교육하여 핏줄은 한국인이지만 정신과 영혼은 완전한 유대인으로 키워가고 있다. 마굴린 부부는 "두 분의 아이들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행복하고 세상을 잘 알며 영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는 아이들로 성장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심을 내려 저희들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두 분께(벨과 릴리의 각각의 생모) 우리 부부는 빛을 졌으며, 두 분이 없었다면 우리 부부는 그들과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는 말로 입양한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르치기 위하여 공부하는 유대인 마굴린 부부의 자녀를 위한 경건한 인간교육 자세에 존경과 감탄을 피할 수 없다.

힐 마굴린은 창의력과 자신감, 사교성을 키우는 유대인들의 공부법을 KBS 글로벌 대기획 다큐멘터리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했고, 그 기록으로 나온 책이 <공부하는 유대인>이다.

마굴린은 2천년 유대인 역사를 통해 유대인을 생존케 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 가르치기와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 △ 배우기(공부하기) △ 토란에 집약된 종교경전과 규율, 탈무드와 유대교 저작물에서 발원한 종교경전과 규율 △ 강한 결속력을 갖는 가족공동체, 가족이 없을 경우 그것을 대신하는 유대인공동체. 이 4가지를 모두 보유한 민족은 유대인 말고 찾아볼 수 없다고 마굴린은 주장한다.

이 4가지 시스템이 유대민족의 유산을 전달하고 보존해주고 든든한 토대가 되어 유대교의 고유한 특성을 지탱해주는데 필요한 전통으로 발전되고, 지식과 지혜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이 시스템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종교'와 '교육'이다.

우리 인간개발연구원은 40년 전에 우리나라 모든 조직의 CEO들과 사회의 지도자들이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르치는 자로서의 교육자의 자질과 능력과 정신을 갖추려면 먼저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1975년 2월 5일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라는 조찬세미나를 시작했다. 2015년 2월 5일이면 40년이 된다. 참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인간학(Total People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인간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펼쳐온 것이 인간개발연구원의 오늘이며, 찬란한 미래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지금 피로 물든 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역사적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끝없이 가르치고 배우며 삶을 영위해왔다. 유대민족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계의 비난 속에 감행되고 있는 저 가자지구의 피의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

July

제1817회 HDI경영자연구회

사람중심의 국가정책과 기업경영

7월 3일(목) 07:00~09:00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강사: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상임고문

좌장: 최갑홍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 국가의 모든 정책을 성장에 집중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 우선 정책은 양극화 현상과 실업자 양산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했다. 기업 역시 존속·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력, 자본, 기업운영 및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 발전·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국가든 기업이든 성장 우선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사람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지적 자본이 중요한 지식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자본, 자원,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사람의 역량과 노력에 의해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다.

7월 경영자연구회에서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을 초빙하여 사람중심의 인간존중경영이 국가와 기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원덕 고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美 보스턴대 경제학 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 비서관 | 사회통합위원회 계층분과 위원회 위원장 | <저서> 노동경제학, 선진각국의 노조운동과 노사관계, 21세기 한국의 노동 외



최갑홍 원장

연세대 전기공학과 졸업 | 美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 | 한국표준협회 회장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이사 | 한국전자산업협회 부회장

제14회 CEO지혜산책

삼성의 패러독스 경영과 삼성전자 성공방정식

7월 10일(목) 07:00~09:00

서울컨벤션 갤럭시홀(한국도심공항 3층)

강사: 송재용 서울대 국제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좌장: 이청승 한국창조학교 이사장

삼성은 1990년대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는 했지만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비해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는 이유기업 정도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단연 우뚝 서있다. 그 누구도 일본기업의 전자제품과 삼성의 전자제품을 비교하지 않으며,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는 아이폰과 함께 세계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서울대 송재용 교수는 1993년 이견희 회장이 주도한 신경영 혁신이 삼성을 어떻게 변화시켜왔으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패러독스 경영'이라고 말한다. 2011년 한국 대학교 수 최초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The Paradox of Samsung's Rise"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삼성의 경영을 이야기한 <삼성웨이>를 펴 내기도 하였다.

7월 지혜산책에서는 송재용 교수를 모시고 삼성의 신경영을 경영학적으로 통찰력있게 분석해봄으로써 기업경영의 혜안을 넓히는 시간을 갖는다.



송재용 교수

美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석·박사 | Asia Academy of Management Conference 전라분야 위원회 위원장 | 한국경영학회 상임 이사 | 연세대 경영대학 경영전략 교수 | 미국 콜롬비아대 경영대학원 경영전략 교수 | 미주 한인경영학자협회 사무총장



이청승 이사장

(주)현우 사장 | (주)한국폴라 회장 | 북경현우예술대학 이사장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국제디자인대학원 이사 및 아카데미 원장 | 세종문화회관 사장

제7회 CEO인문향연

인생을 사로잡은 책 이야기

7월 17일(목) 18:00~21:00

서울컨벤션 갤럭시홀(한국도심공항 3층)

강사: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좌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나는 독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다 배웠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독서의 방법이 그만큼 다양해 끝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다양한 독서편력과 경험을 지니고 있어 '법조인'이라는 호칭보다 '독서인'으로 불릴 만큼 독서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강하다. 이 변호사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좌우명을 실천하고자 대학예비고사 합격 후 절에 들어가 20개월 동안 세계문학, 동서양고전, 철학, 역사서, 전기물 등 300여 권의 책을 읽기도 했다.

7월 인문향연에서는 특별한 인생의 원동력이 바로 '책'이었다고 말하는 이석연 변호사를 초빙하여 삶에 교훈과 감동을 주는 책 소개와 함께 그만의 독서 노하우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석연 변호사

전북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법학 박사 | 제23회 행정고시,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경실련 사무총장 | 헌법포럼 상임대표 | 감사원 부정방지대책 위원장 | 제28대 법제처장 | <저서> 침묵하는 보수는 나라 못 지킨다, 헌법의 길 통탄의 길, 책 인생을 사로잡다 외



유장희 위원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이화여대 교수, 대외부총장, 명예교수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BBB코리아 회장 | 포스코 이사회 의장

August

제1818회 HDI경영자연구회

남북통일의 정책과 전망

8월 7일(목) 07:00~09:00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강사: 양성철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좌장: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노력을 위해 6.15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4년이 흘렀다. 2000년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7년간은 화해와 협력기간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증가하는 등 햇볕 정책으로 대변되는 남북관계 융성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를 거쳐 최근 박근혜 정부 2년간의 7년은 원칙을 고수하는 강경정책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통일대박론이나 드레스덴 선언, 외교안보라인의 변화 등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또한 북한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북핵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우리의 계획과 달리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나 일본의 움직임은 북핵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8월 경영자연구회에서는 주미대사를 역임한 양성철 고려대 석좌교수를 초빙하여 남북통일의 방법론을 제시해보고, 그시기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양성철 교수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美 켄터키대 정치학 박사 |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 제15대 국회의원 | 통일외교정책포럼 대표 | 駐 미국대사 | <상훈> 4.19학생혁명지도 대통령상 | <저서> 물구나무서기 정치, 통일-우리들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 외



정태익 회장

서울대 법학과 졸업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구주정치학 석사 | 駐 이집트 대사, 이탈리아 대사, 러시아 대사 |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제15회 CEO지혜산책

열정이 만들어낸 패션그룹의 원대한 꿈

8월 21일(목) 07:00~09:00

서울컨벤션 갤럭시홀(한국도심공항 3층)

강사: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좌장: 조동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30여 년 오직 패션업에 한 길만을 걸어온 최병오 회장은 한 평 남짓한 동대문시장 점포에서 시작해 32년 만에 패션그룹 형지를 매출 1조원대의 국내 패션업계 2위권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한편 지난 2011년 와일드로즈의 국내 판권을 인수한 이후로 최근 3년간 총 7차례의 크고 작은 인수합병을 성사시키며 지난해에는 매출 1조30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경제사절단 중에서 단체인 것이 아닌 기업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덟 번 연속 참가하기도 한 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8월 지혜산책에서는 굳은 신념으로 30여 년 오로지 패션사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달려온 최병오 회장을 모시고, 성공한 CEO의 인생을 통한 경영자의 성공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최병오 회장

한국대 경영학 명예박사 | 한국패션협회 부회장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 한국류산업협회 회장 |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지식경영학부 특임교수 |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위원장 | 전경련 창조경제특별위원회 운영위원 | <상훈> 은탑산업훈장 모범경영인부문, 매경이코노미 한국의 100대 CEO 외



조동성 교수

美 하버드대 경영학 박사 | 산업정책연구원 원장 | 서울대 국제지역원장, 경영대학장, 명예교수 | 한국경영학회 회장 |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장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공동의장 | 지속경영학회 회장

제8회 CEO인문학연

새로 쓰는 세계사- 인류문명의 뿌리, 오리엔트의 재발견

8월 28일(목) 18:00~21:00

서울컨벤션 갤럭시홀(한국도심공항 3층)

강사: 이희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좌장: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중동 · 오리엔트는 고대 3대문명(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의 요람이자 역사의 뿌리이고, 유대교 · 기독교 · 이슬람교의 영성의 본향으로 단절없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이어져 왔으며, 어떤 문명권보다 인류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바빌로니아 · 히타이트 · 프리기아 · 페니키아 · 앗시리아가 그랬고, 헤브라이왕국과 메디아왕국을 이어 인류 최초의 제국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왕국이 화려하게 문명과 제도의 꽃을 피웠다. 이때 서양에는 그리스가 있었다. 로마문명이 번성할 때, 오리엔트에는 파르티아제국이 5백 년간 번성하면서 중국과 로마를 잇는 동서 실크로드를 장악하며 부와 문명의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로마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파르티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8월 인문학연은 33년간 중동과 이슬람권 현장 연구에 매진하며 이 분야 최고권위자로 자리매김한 이희수 교수를 초빙하여 고대 오리엔트 역사와 문명을 재조명해보고, 새로운 관점의 세계사를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희수 교수

한국외국어대 졸업 | 터키 국립아르타볼대 역사학 박사 | 튀니지 사회경제연구소 연구원 | 세계이슬람학회(OIC) 이슬람서사문화연구소 연구원 | 이스타불 마르마라대 중세사학과 교수 | 한국타라틴학회 사무총장 | (사)세로토닌문화이사회 | <저서> 이슬람과 한국문화, 터키사, 세계문화기행, 지중해문화기행 외



윤은기 회장

고려대 심리학과 졸업 | 인하대 경영학 박사 | 서울시 창의포럼 시정분과 위원장 |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글로벌 시민분과 위원장 | (주)IBS컨설팅컴퍼니 회장 | 서울과 학중앙대학교총장, 석좌교수 |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September

제1819회 HDI경영자연구회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마음의 생태학

9월 4일(목) 07:00~09:00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강사 : 김우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좌장 : 염재호 고려대학교 부총장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음의 연마는 삶의 역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과학적 사고는 이 역정에서 정신적 체험의 일부이다. 동시에 이러한 체험에 기초하여 참으로 과학적인 사고도 연마되어 나온다."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자 김우창 교수가 오랜 통찰과 사색으로 완성한 <깊은 마음의 생태학>에서 밝힌 한 구절이다. 우리의 인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학인(學人)으로 평가받는 김 교수는 문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수학, 생물학 등을 총망라한 압도적인 지식과 눈부신 통찰을 통해 '이성과 마음'의 문제를 파헤친다.

9월 경영자연구회에서는 '인문학의 거인'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마음에서 작용하는 이성의 탄생과 진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의 과제를 제시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6회 CEO지혜산책

모바일 입력장치 세계 1위 크루셜텍의 생존전략

9월 18일(목) 07:00~09:00

서울컨벤션 갤럭시홀(한국도심공항 3층)

강사 : 안건준 (주)크루셜텍 대표이사

좌장 : 김영환 국회의원

'세계를 지배하는 작은 기업' 바로 크루셜텍을 대표하는 수석어이다. 전 세계 OTP(트랙패드)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크루셜텍은 한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히든챔피언이다.

평소 "회사가 작을 뿐이지 사람이 작은 게 아니다"라는 지론으로 규모는 작지만 목표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안건준 대표는 미국의 휴렛팩커드에서 개발하려다 실패한 OTP 기술을 정밀한 광나노기술을 통해 세계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2001년 삼성종합기술원을 나와서 설립한 크루셜텍은 현재 정규직 250명 중 연구인력이 120명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불과 10여 년만에 세계 1위의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킨 비결이 무엇일까? 9월 지혜산책에서는 안건준 대표를 모시고, 1단계의 성장을 넘어 중국시장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제2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크루셜텍의 성장스토리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을 갖는다.

제9회 CEO인문향연

우리 문화원형 콘텐츠의 보고, 삼국유사

9월 25일(목) 18:00~21:00

서울컨벤션 갤럭시홀(한국도심공항 3층)

강사 : 최광식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좌장 :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세계적으로 문화콘텐츠에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전설, 그 속의 신들은 익숙해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건국 신화나 설화는 잘 모른다.

특히 우리는 삼국사기는 정사(正史)로 여기지만 삼국유사는 야사(野史)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만 있다면 고조선과 부여, 발해, 가야 등 제대로 된 우리 고대 역사는 삼국유사에만 있다. 30여 년 동안 삼국유사를 연구한 성과를 <삼국유사> 완역 역주본으로 펴낸 최광식 교수는 삼국사기가 중앙 중심의 지배층 역사라면 삼국유사는 지방사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집대성한 '아카이브(archive)'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에 야사가 아닌 진짜 역사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9월 인문향연에서는 고려대 최광식 교수를 모시고 삼국유사가 왜 우리 문화원형 콘텐츠의 보고가 되는지, 진정한 세계화를 위한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우창 교수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 美 하버드대 미국문학사 박사 |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 대학원장, 명예교수 |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장 | 이화여대 석좌교수 | <상훈> 금호학술상, 고려대 학술상, 녹조근정훈장, 제19회 인문상 외 | <저자> 자유와 인간적인 삶,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 체념의 조형, 깊은 마음의 생태학



안건준 대표

부산대 기계공학과 졸업 | 경북대 정밀기계학 석사 | 삼성전자 기술총괄본부 선임연구원 | 렉스텍 기술이사, 최고기술경영자(CTO) | 벤처기업협회 회장 | 호서대 교양학부 조교수 | <상훈> 일자리창출지원 유공자 정부표창 대통령령상, 제2회 생생코스닥대상 히든챔피언상



최광식 교수

고려대 사학과 졸업 | 고려대 사학 석·박사 | 고려대 사학과 교수, 박물관장 |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 문화재청 청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상훈> 박물관인의 날 대통령표창, G20정상회의 대통령표창 외 | <저자> 한류로드,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삼국유사 완역 역주본 외



염재호 부총장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 美 스탠포드대 정치학 박사 |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기획예산처장, 행정대외부총장 | 한국정책학회 회장 |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 한일미래포럼 대표



김영환 의원

연세대 치의학학과 졸업 | 연세대 경제학 석사 | 제15, 16, 18, 19대 국회의원 | 과학기술부 장관 |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연구원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이배용 원장

이화여대 사학과 졸업 | 서강대 한국사학 박사 |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총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건양대 석좌교수

“세상이 고수에겐 놀이터요
하수에겐 생지옥이지!”

-영화 <신의 한 수>중에서-

축구를 할 때 마다 나는 공만 쫓아
다닌다. 열심히 뛰어 다니는데
공을 차 보지는 못한다.

축구를 잘하는 **고수**가 말한다.

“난 공이 떨어질 위치를 예측하고
미리 달려간다.”



바둑을 잘 두는 **고수**는
이렇게 충고한다.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자리에만 놓고,
지는 사람은
지는 자리에만 놓는다.”

고수의 눈에만 보이는 세상이 있다.
고수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내 눈에만 보이는 한 가지 분야를 만들자.
그래야만 살아 남는다!

제1816회 HDI경영자연구회

6.4지방선거 결과로 바라본 대한민국 정치변동과 전망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면에서 역대 다른 선거와는 차별화되는 점들이 있다. 먼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 3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이다.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98년을 제외하고는 야당의 압승이었다. 한마디로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이다. 세월호참사 이전까지만 해도 이 등식이 깨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60%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정당지지도도 새누리당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월호참사가 터지면서 선거의 프레임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옮겨갔다. 선거결과로만 보면 98년을 제외하고 여당이 참패하지 않은 최초의 지방선거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는 여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이 절묘한 선택을 한 것이다.

6.4지방선거 결과가 던지는 정치적 함의

새정부가 출범하고 1년 3개월 뒤에 선거가 치러졌다는 것은 '대선의 여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당의 선거전략도 '박근혜마케팅'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이 우선돼야 하는데,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선거에서 박근혜의 힘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야당의 압승을 전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여당이 선방했다고 보는 것은 다시 한번 박근혜정부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번 선거의 정치적 함의라고 본다.

두 번째 함의는 야당에 던지는 화두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안철수 의원이 보여준 정치적 미숙함과 이해하기 힘든 정치적 행보였다.

여러 매체를 통해 글을 쓰면서 '안철수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대권을 바라본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경우라도 독자신당으로 나와야 한다.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미래를 보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평균 14년 이상이 걸렸다. 이 말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잠깐의 바람에 호응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에 걸맞는 경륜과 경험을 쌓아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뽑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이다.

세월호참사 이전의 상황이지만 만약 안철수 의원이 독자신당을 만들어 3자 구도로 선거에 나갔다면 분명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며 안풍을 재점화시켰을 것이다. 설사 선거에 패하더라도 선거 후 정치변동과 정당 재편성에 의해 야권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토대로 2016년 통합야당으로 총선에 임하고, 2017년 통합야당의 후보단일화가 아닌 경쟁을 통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독자신당에서 통합신당으로 선회하면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광주 전라곡천 과정에서 미숙함을 보이면서 광주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는 경기인천의 패배로 이어졌다. 수도권에서 새정치, 통합신당의 명분을 갖고 국민들과 접촉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에서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는 이번 선거가 세월호 선거였다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선거판을 바꾸었다. 첫째는 세월호참사로 인해 너무나 차분하고 조용한 선거를 치렀다. 문제는 차분하고 조용한 것은 좋은데 정책이 실종된 선

거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선거는 정책이 이슈화되고 쟁점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대립쟁점이 나타났을 때이다. 무상급식, 4대강문제 등에 대한 찬반이 뚜렷한 사안이 있을 때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나타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과 관련된 이슈밖에 없었다. 안전은 대립쟁점이 아니라 합의쟁점이다. 결국 세월호참사에 대한 심판론 외에는 구체적인 정책은 실종된 선거였다.

이번 선거에서 특이할만한 또 하나는 정당지지도와 후보지지도가 불일치하는 선거였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정당지지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경쟁력은 낮았다. 야당은 정당지지도는 낮는데 후보지지도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결국 정당이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번 선거를 끝내고 여당도 많은 변화를 꾀해야겠지만 야당도 분명 변해야 한다. 특히 통합신당을 만들었다면 정당지지도도 올라가면서 후보지지도도 올라가는 시너지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을 반성해야 한다.

7.30재보궐선거, 변화모습 보여줘야 승리

조용하면서도 차분했던 선거, 대선 1년 3개월 후에 치러진 선거, 후보단일화 없이 양자구도의 선거,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싫든 좋든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선거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결과는 예상 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당이 참패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어느 정도 선방한 결과가 나왔다. 야당도 9곳에서 승리했으니 진 선거는 아니다. 결국 무승부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는 없었다. 이 점에서 여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결국 여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에게 국민들이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다.

현재 유권자들의 형태를 전제로 보면 진정한 승부는 7.30재보궐선거가 될 것이다. 7월 30일 전국 14~15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그 해 7.28재보궐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했다. 두 달 사이에 민심이 변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이 보여준 오만함 때문이었다.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에 도취되어 국민들이 요구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당내 권력투쟁을 벌이면서 재보궐선거 패배라는 결과를 받아들이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은 정당의 변화와 움직임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모두 보고 듣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정당에 표를 던진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번 선거결과를 잘못 해석해서 승리했다고 인식하고 국무총리 인선이나 청와대 개편 등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7.30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완패할 것이다.

이 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선거 후 내부적으로 치열한 권력투쟁이 있을 수 있다. 당 공동대표체제가 있지만 앞으로 상당부분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국가개조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등 앞으로 모든 정치의 쟁점이 국회로 수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야 모두 똑같은 상황이다.

대통령은 이번 선거결과를 보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가개조를 위해 총리도 바꾸고 내각도 바꾸고 청와대도 개편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책임총리제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또한 지켜야 할 문제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분명하게 여야에 똑같이 기회를 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라는 경고를 줬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기회를 갖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마무리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



제13회 CEO지혜산책

꿈이 있는 기업, 한국암웨이의 성공신화

박세준 한국암웨이 사장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이 우리 기업인들의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한다. 결국 지속적인 성장은 우리 인간을 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다수의 직원들, 회사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돈보다 소비자의 마음을 얻어라

우리는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머리는 좋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 성적이 낮다'고 정당화하곤 한다. 편향인식에 있어 가장 적절한 예가 아닌가 싶다. 이렇듯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듣는 경향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동기는 충분히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인지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낮기 때문에 학벌, 회사 등을 통해 그들의 상대를 평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은 합리적인 선택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 휴리스틱(무논리적) 단서 지향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지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 암웨이는 이런 인간이 갖는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가장

순수하게 다가가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에 '돈보다 소비자의 마음을 얻어라'라는 모토로 운영을 하고 있다.

청도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미국의 두 청년이 공동 창업으로 일궈낸 암웨이는 그 이후에 개척한 파트너십을 단 한 곳도 깨뜨리지 않고 있다. 파트너십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Helping People for the better life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암웨이는 이러한 모토를 사문화로 흡수시키고, 결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해왔다. 가장 첫 번째로 일터의 구조적인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권위적 구조는 피라미드지만 암웨이는 역삼각형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조직에서 리더의 위치로 오를수록 더 많은 책임과 업무가 기다리고 있다.

암웨이의 핵심역량은 '품질'

한국암웨이는 1988년도에 사업허가를 얻었고, 1991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다국적기업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던 당시 한국에서의 사업 시작은 역시나 녹록치 않았다. 다섯 가지 세제류를 발매했지만 보호무역에 표방하던 당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암웨이는 고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핵심역량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품질'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소비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즉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상품에 자신이 있었고 우리는 결국 승리했다.

그러나 단꿈은 얼마 뒤 IMF 외환위기를 맞으며 산산조각 났다. 외제물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암웨이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의 무조건적 외제물건 피하기 인식은 생각보다 빠르고 넓게 퍼지기 시작했다. 한국암웨이는 결국 2000억 매출에서 600억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직원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back to the basic'이라는 새로운 다짐으로 다시 도약을 준비했다.

이렇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 암웨이의 구성원들은 뒤를 돌아보고 넘어졌던 곳에 돌은 있지 않았는지, 스스로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등 자기성찰을 게을

리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훌륭하게 위기를 이겨냈고 오늘날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아직까지 말레이시아 등 국가가 나서서 상장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곤 암웨이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지 않고 있다. stockholder들의 이익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일부 상장회사는 기존 회사 철학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암웨이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암웨이는 기존 철학을 지켜야만 브랜드 이미지, 로열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상장을 회사가 커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취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상생 통해 사회적책임 다하는 기업 될 것

암웨이는 문화를 파는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광고를 만들어도 글로벌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만들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에게 부담감 없이 다가가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휴리스틱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기업의 마음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강연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화두에 대한 결론을 내려 볼까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결국 누가 얼마나 '상생'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어떤 기업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결국 그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Q : 한국 암웨이는 IMF를 지혜롭게 극복했다.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A : 본사를 잘 설득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었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1 for 1 등의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돌이켜 보면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을 극복하면서 한국암웨이는 내성을 단단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 피라미드 판매방식은 사실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다. 암웨이는 이런 정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A : 정면 돌파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방법이었다. 100% 품질 보증이라는 자신감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자는 마음으로 회사운동을 했던 것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



제4회 CEO인문향연

왜 인문학인가?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



인문학 열풍이다. 인문학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일부에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가져온 결과로 보기도 한다. 사는 것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거나,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라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선진국은 국가운영의 철학을 인문학에서 찾는다

개인적으로 문화, 철학을 연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일할 기회가 많았다. 중국에서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자금지원을 요청했을 때 항상 넉넉한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요청할 때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받아낸다 해도 규모에서 중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에서 문화, 철학을 연구하기란 쉽지 않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중국인들은 문화, 철학, 예술이 현실적인 일이라고 본다. 혁명을 해도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문화는 현실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말할 길 열치기 철학자는 철학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문화, 철학이 현실과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국은 한 번도 선진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중국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현재 발전 단계에 진입해 있지만, 긴 역사 속에서 선진국도 경험해 봤고, 심지어 제국까지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따라서 문화와 문학, 그리고 철학이 현실을 지배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발전 초기단계의 사회에서는 법학과 정치학에서 나온 생각들을 활용해 국가운영 철학을 세운다. 하지만 사회의 부피가 커지고 다양성이 늘어나게 되면 법과 정치만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이 시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진국' 대열에 올랐을 때다. 이 시기에는 경제학이나 경영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같은 종류의 학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더 나아가 중진국보다 부피가 훨씬 커지고 더욱 다양해지면 또 다시 기존의 학문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 시기가 우리가 원하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을 운영하는 중심기능은 철학, 심리학, 문학, 역사 등이다.

선진국에서 또다시 경제적 부피가 커지고 더 다양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인문학적 시선만으로는 관리의 한계를 느끼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때는 고고학과 인류학이 제 역할을 발휘한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고고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뒤쳐져 있다. 고고학이 학문 이상의 레벨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고학이 발전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미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다양한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들이다. 그들 모두 한번쯤 제국을 꿈꾼 적이 있고 운영해본 나라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선진국의 인문학적 시선과 사회문화

'선진국은 기준을 만들고 후진국은 수용한다, 선진국은 장르를 만들지만 후진국은 장르를 채울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 어떤 인문학적 차이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 냈을까?

서양에서는 한 사람이 이미 뮤지션인데, 뮤지션 레벨을 넘어설 가능성이 보

이면 그 때부터 셰익스피어나 호메로스를 읽고, 문학, 역사, 철학을 읽는다. 그 안에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로부터 인간의 동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예술 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아티스트인 것은 아니다. 인간의 움직임을 직접 보고 생각하고 그 느낌을 예술적 도구를 이용해 표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티스트인 것이다.

현대미술가 잭슨 폴락의 작품들을 본 많은 과학자들과 학자들은 그의 작품은 그가 죽기 25년 전의 세상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 같은 논리로 반 고흐 작품 속에서는 미래의 유체역학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잭슨 폴락과 반 고흐는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넣었던 것일까? 아니다. 그들의 사고 체계는 남보다 앞서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2류 레벨, 후진국 레벨에서 박물관에 가는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다. 기록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문화 연속성의 부재일 수도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선진국에서 다양한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국립박물관을 쉽게 볼 수 있다. 선진국 국민들은 유물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있는 선을 읽으려 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인간의 동선 말이다. 그 동선을 읽고 길목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과거는 이랬었고, 현재는 이러하다면 미래는 이러할 것이라는 생각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역사인 것이다.

인문, 인간이 그리는 무늬

선진국은 또 무엇을 선도하는가? 인간의 삶과 문명의 흐름을 선도한다. 인간의 동선,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인문이라고 한다. 인간은 무늬를 그리면서 사는 것이다. 인간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무늬를 인간 삶에 적용하며 인간의 무늬를 변화시킨다.

상인들, 기업인들이 오늘날까지 무늬의 변화에 가장 먼저 적응해왔다. 그 다음이 공조직, 그 다음이 교육, 그 다음이 법률이다. 기업인들이 예민함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업인들에게만 있는 특성이 있다. 인류 문명의 주도권은 항상 상인들과 기업인들에 있었다. 정치적 변화는 경제적 변화가 일어난 후에 일어났다. 제3의 문명을 만들어 내는 힘은 항상 상인들로부터 나왔다.

상인들은 자기의 의사결정이 직접적으로 자기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항상 생과사의 경계에 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도로 깨어 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인문학을 알아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감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다. 작은 기업인, 큰 기업인, 그리고 작은 정치인, 큰 정치인들 간의 차이는 생과사의 불안감을 잘 견딜 수 있고 없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감당해야 하는 불안을 얼마나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그 사람의 함양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진짜를 볼 수 있는 능력, 인문학

작가 소로우는 "내일 할 산책이 그리워서 잠을 설치지 못하고, 종달새 우는 소리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면 깨달아라. 너의 봄날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라고 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둔감한가를 말해주는 사실이다. 강산은 어제도 변했으며 오늘도 변했고 내일도 변한다. 강산이 변화하는 속성은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는다.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는 수동적인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동적인 개인이나 국가에게 항상 패배했고 끌려 다녔다. 진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이미 내재되어있는 신념과 이념, 그리고 가치관들이 자신의 내공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 그 레벨에 도달했을 때 예술적 감수성, 상상력, 영웅의 기개 등등의 특징이 한 점에서 함께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순간이 지배하는 순간이며 선도하는 순간인 것이다. ■■



우리 맛으로 세계인을 즐겁게

장류 세계화로 한국 음식문화 계승 발전시키는 샘표

박진선 샘표식품(주) 사장



사진: 오경근 원장

"기업경영에 있어 그 규모는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아가 직원들이 경쟁하며 일하는 직장이라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 더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기업의 외형적 성장이 아닌 구성원들의 행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 하는 샘표식품 박진선 사장의 기업 가치관이다. 이는 68년의 역사를 이어온 발효명가 샘표의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창업주故 박규회 회장부터 2대 박승복 회장, 그리고 3대 박진선 사장에 이르기까지 샘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본경영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70년대 중반 공병자동차세척기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일괄 정규직으로 발령 낸 박규회 회장의 일화는 아직도 샘표 내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사건이다. 공장 외벽을 작가들과 함께 작품으로 만든 것을 두고 사람들은 신선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또한 공장근로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시작한 일일 뿐이다.

이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샘표는 박 사장이 경영을 맡고 있는 지금도 다양한 복지를 통해 구성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5시30분 퇴근, 휴가 나누기 프로그램, 분기별 펀데이 운영, 가족 워크샵, 자녀코칭 및 부부코칭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박진선 사장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 적극적인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우리 맛으로 세계인을 즐겁게 하자'라는 비전을 세우고 해외 간장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기업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스페인 요리과학연구소와 함께 하고 있는 '장프로젝트'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세계적인 셰프들에게 한국의 장을 알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샘표는 한국음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식문화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구성원의 행복이 샘표의 핵심가치라고 말하는 박진선 사장을 만나 대한민국 최장수 브랜드 샘표의 창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영스토리와 함께 독특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식문화기업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대담: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장만기 회장과 대담을 나누는 박진선 사장

샘표는 창업주故 박규회 회장님의 남다른 신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는데,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샘표는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설립돼 올해로 창립 68주년을 맞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이 함경도인데, 해방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피난민이 되셨어요. 우리나라 산업기의 태동기와 비슷한 시기로 당시에는 할아버지와 같은 피난민들도 많았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제대로 된 먹거리가 귀하다보니 싸구려의 저렴한 먹거리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충무로 대한극장 건너편에 일본인이 운영하던 소스공장이 있었는데, 해방되면서 일본인은 떠나고 남아있던 우리나라 직원들이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죠. 이 적산 공장을 할아버지께서 인수하면서 샘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간장을 집에서 만들어 먹었지 공장에서 만든 간장을 사서 먹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집에서 간장을 만들어 먹을 형편이 못 된다는 걸 아시고 공장에서 간장을 만들어 공급하면 사업이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피난민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할아버지께서는 '내 가족이 먹지 않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는 경영철학'으로 회사를 일구셨습니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마산까지 피난을 갔었는데, 서울이 수복되고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공장에 내온사인을 걸어서 서울 시내 어디에서든 샘표 공장이 보일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한국 최초의 네온사인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CM송을 만든 것도 우리 샘표로 지금으로 말하면 마케팅을 아주 잘 하신 거죠. 샘표는 현재 등록된 브랜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로 마케팅도 잘 하고, 제품도 잘 만들면서 시장 1위 자리를 놓지 않고 현재도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대를 이어오면서 샘표의 변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사람 중심의 인본경영입니다. 창업부터 글로벌 무한경쟁의 기업환경에 놓여있는 오늘날까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굉장히 검소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할아버지께서는 집 근처에 있는 동네이발관만 다니셨어요. 특별히 기술이 좋은 곳도 아니었는데, 작고하실 때까지 그곳만 이용하셨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먹고 자랐지만 학창 시절 할아버지 댁에서 놀다가도 밥 때가 되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댁 식탁에는 먹을 만한 반찬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회사 역사에서 유명하게 회자되는 일화가 있는데요. 70년대에는 유리병이 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맥주 용기를 수거해서 일일이 세척한 뒤 간장병으로 재활용했죠.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일용직 아주머니였는데, 70년대 중반쯤 유엔에서 산업지원금이 나와서 회사에 유리병 자동 세척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게 되면서 일용직 아주머니들이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게 될 상황이었죠.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할아버지께서 기계가 들어오기 전날 아무도 몰래 일용직 아주머니들을 모두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을 내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결정으로 이러한 경영철학은 지금도 우리 샘표의 중심이 되는 정신으로 이어져오고 있고, 저 또한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이천의 간장공장 외벽을 작가들과 함께 작품으로 만드는 '샘표 아트팩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해 회색의 공장벽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꿔놓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아트를 접목했다, 신진작가와 함께한 신선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생각에서 시작한 겁니다.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는 생각에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하던 중 공장외벽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전문 작가들의 갤러리로 꾸민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샘표 우리발효연구중심'의 '갤러리 프로젝트' 역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본경영'을 실천해온 샘표가 구성원들의 근무환경을 배려하며 임직원들의 행복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구체화시킨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 샘표 이천공장 아트팩토리 전경



▲ 샘표 이천공장 아트팩토리



▲ 오송 샘표 우리발효연구중심 전경



▲ 오송 샘표 우리발효연구중심 내 룸갤러리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정신은 최근 노사갈등으로 인한 기업환경의 불안요소가 부각되는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회사와 직원들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80년대 극심했던 노사분규와 97년 외환위기로 파업 광풍이 불었을 때도 샘표는 파업이 아닌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신뢰의 힘은 같은 문제를 놓고도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작용합니다.

샘표는 70년대부터 직원들에게 분기마다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금협상 때도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그에 따라 협상을 합니다. 저 또한 취임하면서 노조와의 신뢰와 원칙 중시를 천명했습니다. 노조에서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하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회사가 양보해야 할 일도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노조가 양보해야 할 일도 생깁니다. 회사가 양보할 일이 생기면 즉각 실행에 옮기고, 직원들이 양보할 일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 등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다만 원칙은 지키면서 말이죠.

한 가지 예가 직원들의 임금입니다.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회사에 많은 이익이 났다고 해서 갑자기 급여를 올리거나 적자가 났다고 해서 급여를 깎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최소한 사회변화에 따라 회사 사정을 감안해 일정 수준을 인상하고, 흑자가 나면 그에 따른 보너스를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협상을 하다보면 노조가 판단해도 경제상황이나 회사사정으로는 결코 임금인상이 어려운데 회사가 먼저 인상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노조가 '회사가 거짓말은 안 하는구나'를 느끼고 신뢰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샘표는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도 타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대부분 회사문화와 관련된 것들이고, 직무와 관련해 직원들이 받고 싶어 하는 교육은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억 원을 교육비로 지출했는데요. 이는 직원 1인당 185만 원 수준으로 동종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인재를 중시하고, 교육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샘표가 간장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조직원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만큼 바라고 원하는 인재상 또한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샘표는 인재를 채용할 때부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샘표의 인재상과 맞는 인물이냐' 하는 점입니다. 샘표의 인재상은 다소 독특한데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타인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나와 친한 사람만을 생각하는 태도는 회사를 망치는 지름길이지요. 일을 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 일인지, 불리한 일인지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이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일에 열정을 갖고 몰두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같은 동료가 일은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고만 한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역시 성취동기가 떨어지고 일의 능률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슈가 창의적인 인재인데, 사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사람은 저절로 창의적인 인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입사원들과 함께 한 박진선 사장

샘표의 인재 채용은 여러 면에서 일반 기업의 선발 기준과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샘표의 신입사원 채용 기준은 스펙이 아닌 사람을 본다는데 그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원자의 학벌, 성별, 종교, 집안배경, 출신지역 등은 선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60명 정도의 신입사원을 뽑는데, 1만 여명이 지원해요.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이 없이 인적성검사로 250여 명을 1차 선발해 면접을 봅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면접은 면접관 앞에 면접자들이 그룹으로 들어가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주고받은 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샘표는 3명의 면접관이 두 그룹으로 나눠 면접자 한 명씩 15분간 면접을 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인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저 또한 면접 시즌에는 업무도 제쳐놓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면접에만 매달리기도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기업으로서 샘표가 추구하는 기업문화는 어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샘표 하면 간장회사를 떠올립니다. 더 나아가 샘표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발효전문기업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식문화기업입니다. 한국음식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장맛이 한국음식을 한국음식답게 만들어 주죠. 우리가 어떤 장을 만드느냐에 따라 한국음식 문화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느라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 중 하나가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거쳐 경제개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단지 음식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해왔습니다.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다시 일을 하는 게 중요했었죠. 그러는 사이 우리의 음식문화는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면서 2000년을 기점으로 좋은 것을 먹고 즐겁게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샘표가 생산하는 제품 역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기능을 지닌 제품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제품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장류 제품이나 발효식품들이 우리의 음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해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음식문화를 과거의 좋았던 때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샘표 아이장 캠페인' 같은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식문화기업으로서의 활동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된장을 잘 안 먹습니다. 아이들은 더 심하죠. 그러다 보니 엄마들도 자녀들에게 굳이 된장을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사회에 된장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샘표에서는 8년 전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장을 먹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에게 전통 장 문화를 계승 및 전달하기 위한 '샘표 아이장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간장공장의 공터를 유기농 콩밭으로 만들어 매년 소비자들에게 분

양하는 '유기농 콩농장'을 운영하는 한편, 된장의 효과와 담그는 법 등을 가르치는 '된장학교'를 운영해 9천 명이 넘는 수강생이 이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의 가치를 되새기고 전통 발효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샘표 우리발효학교'를 신설해 우리 발효의 진가를 알리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아이들이 우리 음식의 기반이 되는 장을 익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인데요. 특히 스페인의 요리과학연구소와 '장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성과는 어떻습니까.

샘표의 비전은 '우리 맛으로 세계인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97년 사장에 취임 하면서부터 사실상 해외시장을 염두에 뒀는데요. 해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시작한 것은 98년부터입니다.

샘표가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식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스페인의 요리과학연구소 알리시아와 3년째 '장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셰프로 꼽히는 스페인의 스타 셰프 페란 아드리안이 만든 세계 최초의 요리과학연구소로 과학자와 영양학자, 셰프가 한 팀을 이뤄 사라져 가는 식재료의 요리법을 개발하기도 하고, 새로운 조리법을 내놓기도 합니다.

알리시아연구소와 함께 간장, 고추장, 된장 등 한국의 장을 유럽음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장프로젝트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을 처음 접하는 셰프들이 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 컨셉 맵도 제작했습니다. 장이 어떤 식재료에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만든 표죠. 또 장을 이용한 150개의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요리도 만들어 세계적인 셰프들에게 한국의 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장프로젝트는 현재 유럽을 넘어 한국과 중국, 미국에서도 진행될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마드리드 퓨전에서 샘표 제품을 설명하고있는 스페인의 미슐랭 3스타 끼께 다다코스타



▲ 마드리드 퓨전에 참가한 샘표

간장시장은 해외에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공략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샘표만의 경쟁력을 말씀해주시죠.

해외 간장시장은 지난 50년대부터 이미 일본의 유명회사들이 점령하고 있어 쉽게 넘볼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샘표가 해외시장에서 '간장(Ganjang)'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도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소이소스(soy-sauce)'와는 다른 한국간장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현재 신제품 '연두'가 해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리시아연구소와 함께 '연두'를 활용한 음식연구가 한창인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연두'가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한국의 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연두'는 간장의 약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일반 간장보다 훨씬 다양한 요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셰프들도 하나같이 '연두'를 두고 '매직소스'라고 칭찬하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집에서의 개인요리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연두'가 한국음식에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음식과도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를 토대로 중국 상해에서도 올 3월부터 장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중국음식에 '연두'를 어떻게 적용할까를 연구 중입니다. 1년 정도 지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봐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요리사들과 일반 중국인들에게 '연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상류층을 중심으로 MSG를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연두'가 그 자리를 채울 제품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소재사업을 회사의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기능성 및 조미소재 시장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현황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난 68년 동안 장류제품을 만들면서 축적한 핵심 발효기술을 토대로 신소재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는 소재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기능성 및 조미소재 전문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B2B 소재사업을 강화하고 있

습니다.

간장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물질을 통해 다양한 신소재를 추출하는 것이 신소재사업의 핵심 기술인데요. 이미 간장분말 등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했고, 현재도 다양한 조미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조미소재시장에 집중해 시장성을 타진한 후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재료사업에도 뛰어들 계획입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뒤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특이한 경력도 갖고 계신데요. 어쩌면 샘표만의 기업철학과 동일선상에서의 경영철학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장님에게 있어 '기업'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업경영에 있어 그 규모는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직원들이 경쟁하며 일하는 직장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 더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기업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며 즐겁게 지내고, 각자 보람있는 일을 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고, 그래서 즐거울 수 있는 직장이 존재한다면 그 또한 굉장한 의미있는 일일것죠. 그런 직장이 존재하게 하는 것, 샘표가 그런 직장이 되게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샘표 같은 기업이 사회에 하나쯤 있다는 것,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인간개발연구원은 CEO 대상의 조찬세미나를 통한 CEO들의 학습문화 조성, 전국 지자체 및 기업, 공공기관 아카데미 교육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샘표는 어떤 일을 할 때 판단기준이 되는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바로 샘표의 핵심가치입니다. 그 첫 번째는 구성원의 행복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회사에 출근하고 싶은 것, 즐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것이 샘표가 바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는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들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함께 일하는 동료를 존경할 수 없고,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괴로움만 더해지겠죠. 샘표는 우리 음식문화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성원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샘표의 바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개발연구원이 지난 39년 동안 전개해온 '인간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은 기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따뜻한 기업과 기업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업가와 경영자들이 경제성장의 중심에서 교육을 통해 따뜻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박진선 사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대 전자공학 석사 후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46년 故 박규회 회장의 '내 가족이 먹지 않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샘표에 박승복 회장의 뒤를 이어 1997년 사장에 취임하면서 3대에 걸쳐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서울상공회의소 상임위원 및 감사,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국제한식문화재단 이사, 한국유니세프 이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등 다양한 외부활동도 겸하고 있다.

샘표는 그동안 가장 신뢰받는 기업 선정, 투명경영대상 우수상, 한국노사협력대상 중견중소기업부문 대상, 식품업계 최초 월드클래스 300 선정,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상 수상, '연두' 스페인 2013 올해의 제품 선정 등 각종 수상으로 경영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 사장은 이렇듯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기업으로 성장한 샘표를 장류의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식문화기업으로 이끌기 위해 해외시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4

세계 평화와 상생, 공동번영의 길 모색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4'가 5월 29일~30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새로운 아시아 설계"를 주제로 57개국 2530명이 등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9회째를 맞은 제주포럼은 지난 2001년 제주평화포럼이라는 이름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들의 참여 덕분에 지금은 아시아의 협력과 공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포럼으로 성장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TPP, RCEP를 포함하는 경제동반자협정 등을 둘러싼 논의들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 및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주변 및 관련 국가들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포럼 개최식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살람파 야드 전 팔레스타인 총리, 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총리와 리자오싱 전 중국

외무장관 등 50여 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칼리 피오리나 HP 전 회장,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 헬라 쉬호로흐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의 특별세션은 역사와 영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식량·에너지 등의 아젠다를 구축하기도 했다.

특히 "새로운 아시아의 설계"라는 주제에 맞게 평화, 경제·경영, 환경, 문화, 여성 등 다양한 주제의 64개 세션이 마련됐으며, 각국을 대표하는 전문가·외교관·언론인들이 이들 주제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해법을 모색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후원기관으로서 일본 시모무라 하쿠분 장관 초청과 일본 기업인방문단을 초청해 두 개의 정식 세션을 운영했다. 또 3국 기업인 참가자들을 위한 한중일경영자교류회와 한중미일 대학생들의 차세대지도자교류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가운데, 미래 세대의 평화적 교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일평화사절단 역할을 한 일본방문단



▲칼리피오리나 HP 전 회장



▲폐회식에서 인사말하고있는 시모무라 장관

<본원 주최 세션개요>

Session 1. 지역간 국제경제교류와 첨단벤처기업의 성공전략 5월 29일(목)



▲제주포럼 세션을 맡아 진행한 장만기 본원 회장

사회: 조우진 일본 다마대 경영 정보학부 교수

발표: 우치다 히로히사 일본 가나가와사이언스파크 사장

토론: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 오다케 요시키 일본 Aflac Japan 창업자. 최고고문

주요내용: -일본 최대의 벤처기업 육성 기관인 가나가와사이언스파크의 성공사례

- 한국의 사례와 접목시켜 아시아권에서의 지역 국제교류로서 배울 점과 방향성 제시

- 아시아라는 체제 틀에서 일본 기업의 이노베이션과 벤처의 성공철학

Session 2. 한중일 경영자 교류회 5월 29일(목)



▲한중일 경영자 교류회 대표자 토론

사회: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발표: 문국현 한솔섬유 사장, 야오 하이타오 북경 조우추치시스템유 한공사 회장, 오다케 요시키 일본 Aflac Japan 창업자. 최고고문

토론: 장만기 회장, 문국현 사장, 야오 하이타오, 오다케 요시키 고문

주요내용: -한중일 3국은 영토분

쟁을 비롯한 많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새로운 아시아 설계를 위한 한중일 3국 기업의 협력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국가나 정치인이 아닌 기업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는 협력 체제의 필요성.

- 아시아 르네상스시대가 도래할 즈음, 한중일 3개국의 교류와 실천적 협력 방안 제시.

- 글로벌 협회 연합(ICOC)의 역할부각 및 참여 독려.

Session 3. 아시아의 평화문제-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관계 5월 29일(목)

사회: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발표: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무과학성 장관

토론: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 테쓰오 교도쿠 일본 BE연구소 소장, 가와이 आयु (주)One World 회장

주요내용: - 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관계

- 한일관계는 동북아 평화 및 세계평화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 한일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단순히 경제적 개념이 아닌 양국 간에 신뢰자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일본은 자국의 경제력과 소프트파워를 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관계 토론



▲일본 시모무라 장관 - 주제발표



▲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관계 토론- 시모무라 장관

Session 4. 차세대 지도자 교류회 5월 30일(금)

사회: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발표: 한국대표 - 제주대 강혜희, 웰즐리대 류하진 / 중국대표 - 동국대 자오 카일린 / 일본대표 - 다마대 요네쿠라 마사히로 / 미국대표 - 조지워싱턴대 프란체스카 라네타

주요내용: - 새로운 아시아 설계와 글로벌 영리더들의 도전과 협력

- 상호공존과 협력의 시대

-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영리더들의 방안 제안

- 차세대 리더들의 자유로운 의견교류



▲차세대지도자교류회 사회- 장만기 회장



▲차세대지도자교류회 - 한중미일 대표학생들과 함께



▲차세대지도자교류회 - 일본대표 발표

회원소식



● **전순표 (주)세스코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오퍼레이션 스마일코리아**는 지난해 10월부터 베트남의 구순 구개열 아동의 수술 지원을 시작해 최근까지 총 559명의 환자가 수술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퍼레이션 스마일은 구순구개열 아동들의 수술을 돕는 비영리 단체로 오퍼레이션 스마일코리아는 2010년 11월 전순표 회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아 설립됐다. 전 회장은 "30만원, 40분 수술로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돕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 **더푸른미래재단(이사장 장태평)**은 지난 4월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영파머스클럽(Young Farmers Club) 창립총회와 제4회 농식품ICT융복합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영파머스클럽은 연 매출 100억 원을 목표로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고 농어촌을 발전시킬 젊은 인재들의 모임이다. 장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젊은 농업인들이 뭉쳐 미래 한국의 농업을 새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제이엔에스테크(회장 곽태진)**은 지난 6월 25일~2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우수금식산업대전'에 참가해 ecoTCS-R:곰팡이 제거제, ecoTCS-O:기름 오염 제거제, ecoTCS-M:녹제거제, ecoTCS-W:목재복원, ecoTCS-C:카페트세척제 등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회사측은 "각 제품들은 친환경 세정제로서 뛰어난 세정력으로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 **(주)오디바이크(사장 배인용)**가 훈훈하고 감동적인 자전거 이야기를 모아 장애인용 핸드사이클 나눔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오디바이크는 지난 6월 25일까지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일반 자전거가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연을 접수 받아 핸드사이클을 후원하는 '함께 나눔' 사연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사연 주인공에게 퍼시픽사이클사의 '핸디 바이크'를 후원했다. 회사 관계자는 "몸이 불편해 일반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람을 만끽하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 **롯데호텔(대표 송용덕)**은 지난 6월 30일 광에서 롯데호텔광 개관식을 가졌다. 롯데호텔광은 롯데호텔의 4번째 해외 체인으로 지상 18층 규모의 222객실을 갖추고 있다. 송 대표는 "롯데호텔광은 안토니오 비원렛 국제공항은 물론 대표적인 관광 지구와도 인접해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며, "롯데호텔만의 세심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세계 시장에서 롯데호텔의 경쟁력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지난 7월 3일 오전 을지로 본점에서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제·금융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눈높이에 맞는 금융경제교육, 전용 금융상담 콜센터 운영,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등이다.



●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국 8개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여름 밤 뮤지컬 공연'을 무료로 개최한다. 강원도 강릉을 시작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도농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고, 농협은행이 주최한다. 이번엔 공연되는 뮤지컬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국내 첫 나비박사로 불린 석주명(1908~1950)씨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뮤지컬 '닥터 버터플라이'다. 김주하 행장은 "문화공연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시군지역 주민들을 위해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피플스그룹(대표 이재산)**은 7월 17일(목) 강남 토즈에서 원데이 과정으로 제2차 삼성의 인재경영전략과 인사제도 비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삼성이 강한 진짜 이유를 알아보는 이번 세미나는 삼성의 인재경영 철학과 인사의 혁신전략의 이해, 삼성의 핵심인재와 글로벌인재 육선전략과 사례, 삼성의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진화와 보상전략, 삼성전자의 인사제도와 인재경영 실천사례 등에 대해 깊이있는 강연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주)대명레저산업(사장 박흥석)**이 속한 대명그룹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내의 온라인 종합여행사 대명투어몰(www.daemyungtourmall.com)이 가장 인기 있는 해외 리조트만 모아 특가에 제공하는 리조트몰을 오픈했다. 리조트를 담당자는 "국내 1위 리조트 브랜드답게 수많은 해외 리조트들 중에서도 고객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리조트들을 지속적으로 엄선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사나 호텔, 리조트 등과 직접 계약을 통해 시중가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균 경력 7년 이상의 여행전문가 직원들이 여행자의 최신정보와 상세한 비교를 통해 최적의 여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



● 마킹과 코딩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상의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해내는 **(주)티에이에스(회장 송문호)**가 축산업 산관계의 계란마킹 분야에 진출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개별마킹기 'U2에그'는 크기나 가격 면에서 우수하고, 유지 보수 필요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잉크카트리지를 교체 방식이라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해 농장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판란마킹기인 '터치에그'는 계란 한판을 한꺼번에 마킹하는 제품으로 개별마킹기와 같이 잉크카트리지를 교체 방식으로 유지 보수가 필요없다는 장점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조용선(췌유창 회장)의 장남 우재군의 결혼식**
이 지난 6월 14일(토) 오후 6시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이름	회사명/직함	창립기념일
(주)다비육중	윤희진 회장	7월5일
(주)태창플랜트	송언기 회장	7월7일
일우선박(주)	서정권 원장	7월27일
기업은행	권선주 행장	8월1일
썬테일러	우덕성 사장	8월1일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8월15일
Big Dream & Success	공한수 사장	8월27일
유신산업(주)	김동철 고문	9월1일
KCTC	이윤수 부회장	9월1일
동익건설(주)	박성래 회장	9월20일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황경호 이사	9월30일

소모임소식

- **이중1그룹(회장 이윤수 / 총무 고지석)**은 매월 마지막 주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간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지난 5월 모임에서는 김석문 사장의 신일 팜글라스를 방문해 경영정보 등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까지 총 322차의 모임을 이어오고 있는 이중1그룹 모임에 회원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의: 고지석 회장 T. 02-598-3747)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정문호 / 총무 정지환)**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정기모임을 갖고 '손광성의 수필쓰기' 수업을 통해 회원들의 글을 품평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15

년 본원 창립 40주년에 맞춰 에세이클럽 문집 발간을 목표로 회원들의 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원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정용달 팀장 T.02-445-1949)

교육컨설팅소식

- **합동군사대학, 허성도 교수 모시고 강연회 가져**

합동군사대학(총장 윤완선 소장)과 본원이 함께하고 있는 'JFMU아카데미' 제3회차 강연이 지난 6월 24일 허성도 서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우리 역사 다시 보기"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강연에는 장만기 본원 회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 등 800여명이 참석해 강연을 들었다. 강연 후 합동군사대학 간부들과 함께한 오찬에서는 얼마 전 군에서 발생한 '임병장 사건'과 관련해 군문화 개선 방향에 대한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오찬 후 장 회장과 윤 총장은 개별 만남을 갖고 군문화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눈 뒤 향후 교육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연구원소식

- **일본 아오모리현 관계자 장만기회장과 간담회 가져**

지난 7월 1일 일본 아오모리현 기획정책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본원 장만기 회장과 양국 인재양성과 교육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0년 11월 장 회장이 일본을 방문해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본원의 지자체 대상 교육의 성공사례와 함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 후 한국의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방문단에는 아오모리현 기획정책부 지역협력진흥과의 시라토 아키코 총괄, 와카키 겐조 과장, 후쿠시 카즈히로 주임, 아오모리현 지자체 정책기획과 하라타 히로카즈 차장, 그리고 아오모리현 서울사무소의 쿠도 야스마사 소장 등이 참석했다. 양국의 방문 교류의 결과로 매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아오모리현지사가 직접 참석하는 등 교육에 관한 교류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2014 HDI 춘계 친선골프대회 5월의 그린 위에서 회원들과 친교의 장 펼쳐

본원 이사진과 중진회원들이 참여하는 '2014 HDI 춘계 친선골프대회'가 5월의 푸른 그린 위에서 함찬 샷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7명의 이사 및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월 29일(목) 남촌CC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화창한 날씨 속에 골프로 건강도 챙기고 회원간 친교도 다지는 일거양득의 시간이었다.

친선을 겸한 라운딩에서는 채영수 수안산업 대표가 메달리스트를, 홍승국 에버그린MST 대표가 우승을, 최재정 JSB도시환경 대표가 준우승을 차지해 푸짐한 경품을 받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상을 통해 각 회원사에서 협찬한 경품을 수여해 모두가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라운딩 후 이어진 만찬은 이용국 신원헬트 회장이 후원한 가운데 즐겁게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를 위해 후원 및 다양한 경품을 협찬해주신 회원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주



후원&협찬에 감사드립니다.

- 이용국 신원헬트(주) 회장 : 만찬 후원



- 이형규 뱅골프코리아 대표 :
골프용품(드라이버1, 우드1, 젯지3, 볼수거기1)



- 이동현 BWS강남와인스쿨 회장 :
와인폴리페놀 30개, 시음용와인 및 와인선물세트 4개

- 이종원 예술과여행 대표 : 그림작품 1점



- 홍승국 에버그린MST(주) 대표 :
골프용품세트 30개

- 유영만 웰텍코리아 대표 : 차량광택청소기 10개

인간개발연구원 '찾아가는 CEO교실 13, 14, 15'

세라젬 · 벤텍스 · 포커스컴퍼니 차례로 방문해 회원교류 시간 가져

건강한 삶의 동반자' 세라젬 방문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개척자 정신으로 헬스케어산업에 도전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세라젬 천안 본사 및 공장을 지난 4월 18일 40여 명의 회원들이 방문했다.

이왕구 사장은 회원들을 맞이한 미니강연에서 세라젬의 강점으로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맨파워', '불굴의 도전정신', '우수 품질의 제품', '탁월한 마케팅 기법', 'CEO의 경영철학(1.세라젬사관학교 정신(공정의 마인드, 주인의식, 신뢰의 정신) 2.이익 분배의 원칙 3.투명경영)' 등을 예로 들었다.

회원들은 세라젬의 기업철학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공장 생산라인과 제품전시관 등을 둘러보고, 자동적추온열치료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실제 13년 연속 헬스케어부문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세라젬의 기술력을 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1초 만에 고객을 감동시켜라' 벤텍스 방문

1초 만에 마르는 섬유 '드라이존'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창조경제시대 히트챔피언 벤텍스를 지난 5월 15일 20여 명의 회원들이 방문했다.

고경찬 사장은 슬로건(Slogan), 스토리(Story), 스마트(Smart)로 이어지는 차별화된 3S전략 마케팅으로 세계 유명 브랜드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편 업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텍스는 1999년 설립 이후 '드라이존'을 비롯해 땀을 냉매로 전환하는 섬유 및 땀을 열매로 전환하는 섬유, 하이브리드 체열반사섬유, 생체활성화에너지섬유 등 수많은 제품 개발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회원들은 벤텍스 섬유과학연구소 등을 둘러보며 벤텍스만의 기술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의료진단 사업에 도전하는 포커스컴퍼니 방문

최고 품질의 리서치 컨설팅 서비스 제공에 이어 IT솔루션사업과 건강진단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포커스컴퍼니를 지난 6월 20일 20여 명의 회원들이 방문했다.

최정숙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리서치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 포커스컴퍼니의 성장비결과 경영전략으로 교육을 끝냈다. 리서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창출한다는 얘기가.

여기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토션'기술을 도입했다. '토션'은 간단한 방법으로 신체 각 부분의 질환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장치로 환자의 병리적 상태에 적합한 처방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회원들은 이날 토션 진단을 체험하고 신체적 질병위험도를 체크와 내 몸에 맞는 음식처방을 받는 등 새로운 기술력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세라젬방문-이왕구 사장의 미니강연



▲ 세라젬방문-온열기 체험



▲ 세라젬방문-기념촬영



▲ 벤텍스방문-고경찬 사장의 미니강연



▲ 벤텍스방문-고경찬 대표



▲ 벤텍스방문-벤텍스 신기술체험



▲ 포커스컴퍼니 방문-최정숙 대표의 미니강연



▲ 포커스컴퍼니 방문-포커스 드림보드



▲ 포커스컴퍼니 방문-토션진단체험

2014
JEJU

| 주최 |  인간개발연구원
HUMAN DEVELOPMENT INSTITUTE

힐링의 바다에서 만나는 지혜의 숲

CEO
SUMMER
FORUM

개 회 기 간 2014년 7월 30일(수) ~ 8월 2일(토) / 3박 4일

개 회 장 소 제주 해비치호텔 & 리조트

참 가 대 상 기업체 / 기관 / 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참 가 비 200만원/비회원사 부부기준 (회원사 할인 적용)

참 가 문 의 HDI 제주CEO섬머포럼사무국 | www.khdi.or.kr

호경아 과장 | Tel : 02-445-1947, Fax : 02-2203-1974

E-mail | rubato@khdi.or.kr

리더의 가치창조의 시대
질문과 선택

2014 32th JEJU CEO SUMMER FORUM 강사 프로필



정호승
사인



홍석우
AT커니코리아 상임고문



우종남
유니세프 한국 사무총장



방우정
MC리더스 대표



오정혜
영화배우, 국악인



유장희
통반성정위원회 위원장



권은기
한국합경진흥협회 회장



박종규
비즈니스매거진 총편집자, 교수



문국헌
한솔성유 대표이사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양진석
와이그름 대표이사



권영결
한샘 사장



조은봉
파프렛엑스 대표



박협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박재갑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백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2014 32th JEJU CEO SUMMER FORUM PROGRAM

PROGRAM
7월 30일(수)

미래 인사이트를 위한
창조적 질문

개회 인사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환영 특강	삶에 관한 질문들은 시를 만든다 정호승 시인	
특별 대담	가치창조의 시대 미래 인사이트를 위한 질문' 홍석우 AT커니 상임고문, 前 지식경제부 장관 오종남 서울대 교수, 유니세프 한국사무총장	
환영 만찬	제주섬머포럼 친교한마당 방우정 MC리더스 대표 아름다운 우리음악의 멋과 흥, 소리 이야기 오정혜 국악인	

PROGRAM
7월 31일(목)

보이지 않는
미래를 꿰뚫는
경영의 기술

인재 육성	작은기업 한국콜마의 기술혁신과 인재육성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특별 대담	통일 독일을 세계 최강으로 키운 기업스토리와 한국의 선택 김종갑 지멘스 대표이사 문국현 한솔섬유 대표이사	
유머 스파치	방우정의 맛있는 유머화법 '홍희인간' 방우정 MC리더스 대표	
힐링 타임	바쁜 현대인을 위한 건강 수지침 김상희 고려수지침 제주지회장	
	개별 중식 / 제주 테마관광 / 친선 골프대회 (해비치CC)	

PROGRAM
8월 1일(금)

新세계를 창조하는
비전과 열정의
상상블

경영 대토론	동반성장과 협업으로 이루어가는 자본주의 4.0 유창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 창립자, 고문	
문화와 건축	스토리와 융복합의 결정체, 건축 새롭게 보기 양진석 와이그를 대표이사	
디자인 경영	궁극의 선택 : ABC 디자인 권영걸 한샘 사장	
힐링 타임	제주도 약초탐방 & 힐링여행 윤갑노 약초자연치유연구가	
	제주 테마관광 / 친선 골프대회 (해비치CC)	
제주 섬머 음악회	행복한 클래식, 드라마틱한 인생을 담다 조윤범과 파르티엑스	

PROGRAM
8월 2일(토)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감사 경영	세상의 모든 스승 어머니, 그리고 감사경영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건강 특강	명의에게 듣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박재갑 서울대 교수	
역사 특강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창조적 진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폐회 인사	한영섭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개별 중식 및 공항 이동	

경제는 '자연과 인간을 종합'한 것

물처럼 바뀌는 경제현상 이해하려면 기존 사고 틀에서 벗어나야

박우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전 세종대 총장)

50년 가까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쳐 온 박우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기존의 주류경제학을 넘어서 부국부민, 경제제민의 경제학을 마련하고자 쓴 책 <경제원리, 물처럼 흐른다>를 최근 출간했다. 원로 경제학자인 박 교수는 현대 주류경제학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한국경제학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책은 경제원리에 집중, 이를 철학·방법론 및 인지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를 자연과 인성의 조화로 보고 이에 맞춰 경제이론의 전제, 가정, 변수 등이 무엇인지 그 모습과 성격, 발견의 철학적 뿌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찾아진 경제원리의 구조를 바탕으로 박 교수는 한국경제에 적합한 '한국의 경제학', 동북아경제의 특성에 맞는 '동북아 경제학'을 이론화하는 길을 찾고자 했다. 박 교수를 만나 주류경제학의 한계와 물처럼 흐르는 경제의 원리를 통한 새로운 부의 창출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요즘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연구와 교육은 경제현실보다 가상에 치우쳐 학생들의 사고의 폭을 좁게 만들고 평상의 색안경을 벗지 못한 채 통찰과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학을

배운 정책입안자들에게 넓은 식견과 안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 교수는 지금의 경제학 교육이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현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학과 교과목에 경제철학도 없고 사회경제학도 없이 수리적인 모델링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경제학자가 되고 정책입안자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실과 호환하지 않는 경제이론이 정책 실패와 경제위기를 낳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없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원리, 현실 속에서 찾아야

주류경제학 색안경 벗고 한계 극복할 때

주류경제학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과 현대경제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책, <경제원리, 물처럼 흐른다>는 어떻게 집필하게 됐을까? 그는 "경제학은 경제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만물의 이치인 원리 중에서도 경제에 관한 원리



를 경제현실 속에서 찾는 거죠. 현실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학을 통해 일상생활 속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경제원리를 찾아내어 살아있는 정책을 입안, 경제현실을 더 낫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경제현실에서 원리의 참모습을 찾아내고 중요변수를 바르게 밝혀냄으로써 이론과 정책을 수립, 현실을 해석, 이해, 설명, 예측

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로 집필의 동기를 대신했다.

그렇다면 경제원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박 교수는 경제원리는 현실에 내재하고 현실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현실은 변하기 때문에 경제원리도 늘 변하고 그 모습도 다양하며, 뜻도 여러 가지로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경제원리란 본질적으로 불완전해서 현실과 간극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가상을 추구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현실과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경제원리가 자연원리와 다른 근본적 차이입니다."

그는 사회·인성에까지 자연법칙관을 바탕으로 자연과학만을 추구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에서는 영원히 원리를 찾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자연법칙관과 함께 사회·인성관 특히 인간의 통찰력과 직관, 경험들이 함께 구사될 때 비로소 원리와 현실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현실이란 인간의 오욕이 다양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을 수식으로만 다루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학적 토대 위에서 상황에 맞게 이론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경제원리를 찾는 방법은 선조들이 각자 여건에 맞는 전제와 가정을 세워 놓고 결론을 도출했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케인스가 투자의 한계효율과 유동성 함정 개념을 새롭게 만든 것이나 프리드만이 통화주의 경제학을 만든 것은 동일한 지적 탐구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동양 고전에서도 경제원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사마천의 <사기> 중 재물과 관련있는 인물의 일대기를 정리한 '화식열전'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과 물가, 화폐 등의 개념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화식열전'은 경제원리의 본질인 인간의 오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선조들은 시대상황에 맞춰 철학과 직관, 수학을 골고루 사용해 이론을 구성했지만 현대경제학은 직선적으로 과정을 너무 단순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박 교수는 주류경제학의 문제점으로 경제현실은 정치, 사회 등 각종 변수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인데, 경제학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변수를 제거한 뒤 현상만을 분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미국경제학의 영향력으로 진단했다. 미국경제학이 너무 물리환원적인 방법, 특히 수학 등을 동원해서 풀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경제학은 수학, 특히 계량경제학의 무기 없이는 일류경제학자가 될 수 없

고, 경제철학이나 윤리, 제도, 권력, 탐욕 등을 다루는 글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최근 분야를 넓히고 심리까지 다루는 행동경제학, 인지경제학이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점점 현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그는 주류경제학 중 현대형식적모델링기법과 현대계량경제모델링기법으로는 경제현실의 복잡성을 분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성장 끝나지 않았다

생명자본주의가 새로운 부 창출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고성장 시대가 끝났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경제의 과제는 산업화 정보화시대의 부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생명과학과 농업혁신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1세기 자본주의는 대량생산에 기반한 산업자본주의와는 다릅니다.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기존 방식은 이제 맞지 않아요. 가치 창출의 원천이 정보와 생명, 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금리와 투자, 지출과 소득간 상관관계가 줄어드는 현상을 그 예로 들었다.

"돈이 돈을 낳는 금융자본주의 역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부의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신드롬이 그 징후라고 할 수 있죠. 19세기 영국의 사회개혁가 존 러스킨은 '생명자본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 등이 노동에서 부가 창출된다고 봤다면 러스킨은 생명에서 부가 나온다고 봤죠. 당시만 해도 러스킨의 이야기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면서 물질 이상의 가치가 중요해졌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돈도 버는 것이 새 자본주의의 핵심과제입니다."

결국 주류경제학이 노동, 자본과 같은 요소 투입과 모호한 기술 진보라는 개념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생명'이 주요 변수라는 것이다. 바로 이 생명 중심 기술로 4만 달러를 넘어 10만 달러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우희 명예교수

1935년 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박사, 일본 동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한국경

제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서울대 교수, 사회과학대학 학장 등을 거쳐 현재 경제학부 명예교수다. 2012년까지 세종대 제10대 총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경제학의 기본원리: 과학·철학·예술과 경제원리의 발견>, <답을 주는 경제학: 제2경제원론> 등 40여권의 책을 집필했고, 9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로 경제학자로 자리하고 있다.

재검토 되어야 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노무현 정부는 2006년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목적으로 도입했던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를 폐지시켰다. 이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이 제도가 정책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자기들의 시장이 보호되고 경쟁이 제한되자 기술 혁신이나 국내외시장의 개척이나 확대에 노력하는 대신 현상유지에 안주하는데 급급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국내시장이 외국기업에 완전히 개방되자 국내 대기업이 철수한 빈자리에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문구업계와 LED조명업계를 들 수 있다. 문구업계를 보면 볼펜과 액체지우개는 일본기업이 연필은 독일기업이 접착메모용지와 접착테이프는 미국기업이 각각 독점적으로 국내 문구시장을 휩쓸고 있다. LED조명업계의 경우도 문구업계와 비슷하다. 대기업이 철수한 빈자리에 오스람과 필립스 같은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대부분 점령해버렸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

좋은 사례로 식품업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간장, 된장 시장에서 1위를 달리는 샘표식품(주)은 대기업이 되었는데 간장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자 사업을 축소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 풀무원 역시 30여 년간 두부생산을 중심으로 식품생산 대기업으로 성장했으나 두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시행되었던 1991~2001년간 중소기업고유업종에 속했던 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1.3%, 생산액과 종사자수 비중은 4.3%, 2% 각각 감소한 사실(중소기업중앙회 조사)만 봐도 이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육성하여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당초의 정

책목표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시장이 외국기업에 완전히 개방된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국내시장을 외국기업들에게 거의 다 넘겨주거나 국내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의 진입을 가로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정치적 논리 대신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 김동기 석좌교수

1934년 생으로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영학 석사 후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1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고려대 경영대학장, 경영대학원장,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국제대학원 초대원장, 경영학과 명예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국마케팅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물류학회, 한국상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의 회장으로 다양한 학계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고대경제인회 고문 및 편집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대마케팅론> <국제화시대의 경영전략> <GE혁명의 운명을 지배하라> <국제마케팅론> 등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국민훈장 석류장,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시간을 이기는 피부과학, 형태를 초월한 생명과학 한국콜마의 다음은 뭘까?

노화를 이중으로 완화하며 주름진 눈가를 개선하는 일,
10년의 피부나이까지 초월하는 기술, 액체를 캡슐에 담은 제제기술-
이 모두가 당신을 위해 화장품과 의약품을 만든 한국콜마의 발자취입니다.
생각의 한계에 도전하며 수 십 년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왔듯,
한국콜마는 오늘도 다음 세상의 피부과학과 생명과학을 연구합니다.

당신을 향한 변화, 한국콜마



• **액상경질캡슐**: 국내 유일 제제기술인 리드캡 기술로 만들어진
경질캡슐로 액상 성분이 부드럽게 체내에 더 빠르게 흡수되도록 돕는
캡슐형 의약품입니다.

kolmar
한국콜마



▲ 1980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 달성

1959년 세계 최초로
생분해가 가능한 세제 출시



1992년 UNESCO
Transpolar Medal 수상



2003년 글로벌 아동복지 캠페인
'One by One' 시작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세계 100개국에서 일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처음 창업했을 땐 5명의 회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 9백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나는?
네, 암웨이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주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었기에 초심과 철학을 변함없이 지켜왔기에, 미사건 에이다에서
시작한 AMERICAN WAY는 이제, 세계로 통하는 GLOBAL WAY가 되었습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생활 주식회사

Amway